

## 우리 주위의 식물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 내장산국립공원 및 전라남도자연학습장 식물 중심-

### 1.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식물

1) 변산바람꽃은 10cm 정도의 줄기와 꽃받침이 먼저 나온 후 꽃받침 안에 꽃잎이 흰 수술과 함께 나온다. 꽃잎처럼 보이는 것은 꽃받침이고, 안쪽에 위로 치솟은 녹색, 노랑색 갈때기가 진짜 꽃잎이다. 겨울과 봄의 계절을 나누는 풀이란 의미로 절분초(節分草)라 불리기도 하니, 봄의 전령사라 해도 손색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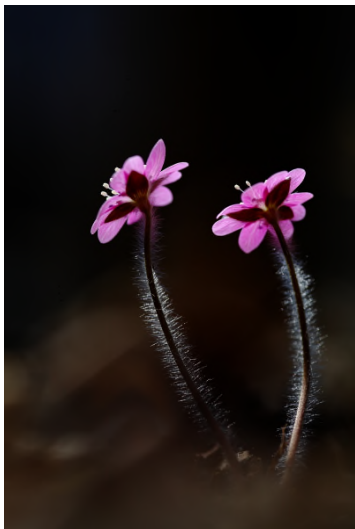
바람꽃이라는 이름은 바람의 신 제피로스와 플로라의 시녀 아네모네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꽃의 신 플로라는 연인 제피로스가 그녀의 시녀 아네모네를 사랑하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녀를 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상심한 제피로스는 매년 봄이 되면 바람을 보내 아네모네를 아름답게 꽃피우게 했다고 한다.

변산바람꽃의 학명은 봄꽃이라는 의미의 'Eranthis'와 발견지인 변산, 발견자의 이름이 반영된 *Eranthis byunsanensis* B.Y. Sun으로 표기하고 있어 우리에게 의미있는 꽃이다.

2) 복수초 - 3월이 되면 20~30개 정도 꽃잎을 가진 노란꽃이 피는데, 바로 매화, 동백꽃 등과 더불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우리 꽃 복수초다.

복수초는 뿌리호흡을 통해 스스로 열을 내 쌓인 눈을 녹이고, 황금색 얼굴을 내밀어 햇빛을 모으는데, 따뜻한 온기와 화려한 색은 곤충을 유인해 번식한다.

복수초는 복(福)과 장수(長壽)를 가져다주는 꽃이라는 의미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꽃이 핀 화분을 붉은 리본으로 장식해 새해선물로 주고받는데, 노란색은 황제와 태양을 상징해 고귀함을 뜻한다. 그 고귀함으로 온갖 잡귀를 물리치고 수복강녕을 불러온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풍속이 생긴 듯하다. 복수초는 한겨울 눈을 뚫고 나와 얼음새꽃, 일년 중 가장 먼저 피어 원일초 등 불리기도 한다.



3) 노루귀 -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노루귀는 꽃이 진 후, 3갈래로 나누어진 잎이 뿌리에서 나오고, 3~4월에는 종자를 퍼뜨리기 위해 꽃대를 높이 올리고, 한 송이씩 하늘을 향해 피우며 생존을 위해 안간힘 쓴다. 또한, 남해안이나 제주도 와 같이 척박한 지역에서는 개체가 작고 꽃과 잎이 동시에 나오는 '새끼노루귀'로, 울릉도와 같이 부식질이 풍부하고 연중 공중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개체가 크고 상록성인 '섬노루귀'로 진화하며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노루귀는 흰 털로 덮인 잎이 돌아나는 모습이 '노루의 귀'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지만, 이른 봄 눈을 비집고 꽃을 피운다는 의미로 파설초(破雪草)라고도 불린다.

4) **평의바람꽃**은 10~20cm 정도의 여러해살이풀로 숲 언저리나 풀밭, 산기슭에 무리지어 자란다.

이른 봄, 눈이 녹기 시작할 무렵에 꽃줄기 끝에 1송이씩 흰색 꽃을 피우는데, 햇빛이 없으면 꽃을 피우지 않는다. 그런데 왜 '평의 바람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 평의 짝짓기를 하는 시기에 피기 때문이라는 설과, 대부분의 바람꽃이 짧고 끝이 둥근 형태의 꽃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장끼의 꼬리깃처럼 꽃잎이 길고 뽕족해서라는 설이 있지만, 봉우리를 오므리고 잎이 말려 있는 모습이 평의 발 모양을 닮아 이름 붙여졌다는 설에 비중을 두고 있다.



5) **생강나무** - 녹나무과에 속하는 생강나무는 3m 정도로 자라며, 수피는 짙은 회색 바탕에 흰색의 얼룩무늬가 나타난다. 암수딴그루로 3월에 자잘한 노란색 꽃이 꽃줄기 없이 가지에 붙어 잎보다 먼저 핀다. 꽃과 잎, 가지에서 생강 같은 알싸한 냄새가 나서 생강나무라고 이름 붙여졌다. 열매는 7~8mm 정도로 9월에 검은색으로 맺는데, 동백나무가 피지 않는 지역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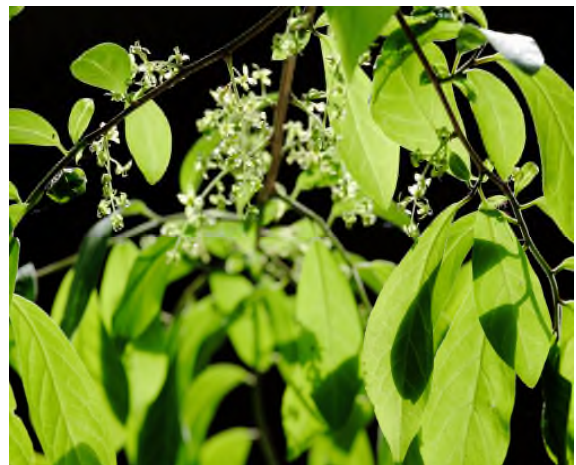
생강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머릿기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백나무라고도 불린다. 김유정의 단편소설 <동백꽃>의 나오는 “알싸하고 향긋한 노란 동백꽃 냄새”의 지문과, 정선아리랑의 “아주까리 울동백은 다 떨어지고..” 라는 구절에 나오는 동백은 바로 생강나무를 칭하는 것이다.

6) **광대수염**은 약 60cm 정도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산과 들, 또는 낮은 지대의 밭둑 등에서 자라는 꼴풀과 식물이다. 광대수염은 꽃이 피는 잎자루와 줄기의 겨드랑이 사이에서 긴 수염처럼 생긴 돌기가 광대의 수염과 닮아서 ‘광대수염’이라 이름이 붙여졌다.

학명으로 쓰인 ‘album’은 라틴어 albus에서 유래된 뜻으로 ‘백색’을, barbatum은 ‘수염’을 뜻해 ‘수염이 나 있는 목구멍 모양의 흰 꽃이 피는 식물’이라는 의미로 광대수염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7) **상산**은 2m정도로 자라는 운향과의 작은 키나무다. 나무껍질은 회색을 띤 갈색이며, 어린 가지에 털이 약간 있다. 잎 표면은 노란색을 띤 녹색으로 광택이 있으며, 독특한 냄새를 풍겨 쉽게 알 수 있다. 상산은 특유의 향기가 있어 나무 그늘 같은 곳에 심으면 파리와 같은 해충을 쫓아낼 수 있다. 잎과 줄기를 삶은 물로 가축을 닦아주면 각종 해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삶은 물을 재래식 화장실에 부으면 벌레를 죽일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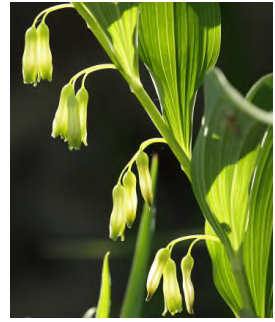
8) **굴거리나무**는 수고 7~10m 정도로 자라는 대극과의 작은키나무다. 한자로는 교양목(交讓木)이라고 하는데 먼저 달렸던 잎이 새잎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떨어지는 굴거리 나무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내장산국립공원의 굴거리나무 군락은 천연기념물 91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데, 이는 굴거리나무가 자생하는 북쪽 한계지역이라는 학술적 가치와 한국과 일본에 분포해 한일난대구계를 구분하는 표지종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9) **족도리풀**은 약1m 정도로 자라는 쥐방울덩굴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작고 동그란 꽃 모양이 혼례를 치를 때, 신부의 머리 위에 쓰는 족두리를 닮아 '족도리풀'이라 이름 붙여졌다. 족도리풀은 꽃이 낙엽 속에서 피거나, 땅에 바짝 붙어서 피기 때문에 벌과 나비에 의한 수분이나 수정은 기대할 수 없고, 낙엽 속이나 땅속을 기어 다니는 개미나 지렁이들에 의해 수분된다.



10) **등굴레**는 30~60cm 정도로 자라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산과 들의 풀밭이나 숲에서 흔히 자란다. 등굴레의 영명은 'solomon's seal' 로 줄기가 사그러진 자리가 다윗이 쓰던 육각형의 방패 모양으로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두개의 삼각형이 역교차된 다윗의 별(the star of david)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서 생약 중 첫 번째로 든 등굴레는 중국 한무제와 선인이 즐겨먹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이다.



11) **영경귀**는 50~100cm 정도로 곧게 자라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피를 멈추고 영기게 한다고 해서 영경귀라고 이름 붙여졌다. 영경귀에 따라붙는 대표적인 수식어는 '나라를 구한 꽃'으로, 13세기 덴마크와 스코틀랜드 전쟁 당시, 급습하던 덴마크 병사가 영경귀를 밟은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자, 스코틀랜드 군사들이 이를 눈치 채고 공격해 승리하게 된 후 국가의 상징이 되었다. 또한, 영경귀훈장은 영국에서 가장 유서 깊고, 명예로운 훈장 중 하나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꽃이라 할 수 있다.



12) **참나리**는 1.5m 정도로 자라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란다. 나리류 중에서도 꽃이 크고 아름다워 '진짜 나리'란 의미로 '참나리'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붉은 꽃잎이 뒤로 말려 있어 '권단'이라고도 한다. 나리꽃이 많이 피는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해서인지 민화에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으로 사용되는 나리꽃은 논둑이나 밭둑, 우리가 사는 집 담장 밑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우리 꽃이다.



13) **진노랑상사화**는 40~70cm 정도로 자라는 수선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전라도지역의 산 숲 속에 드물게 자생한다. 상사화란 이름의 유래처럼 꽃과 잎이 피는 시기가 다르고, 꽃잎이 갈라져 펼쳐지는데 백합과 식물들과는 달리 한 쪽이 깊게 패이고 벌어져 마치 부채살이 펼쳐지듯 꽃이 피며, 사찰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상사화나 석산의 고향은 중국인 반면 진노랑상사화는 한국 특산 식물로 더욱 가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14) **산수국**은 1m 정도로 자라는 범의귀과의 작은키나무다. 산수국은 산(山)에서 자라고, 물(水)을 좋아하며, 국화꽃(菊)처럼 풍성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산수국의 꽃은 암술이 있는 진짜 꽃과 벌, 나비를 유혹하기 위한 가짜 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가짜 꽃은 꽃가루받이를 끝낸 후 얼굴을 돌려 '뒷모습이 아름다운 꽃'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제주에서는 꽃의 색깔이 파란색의 도깨비불을 닮았고, 꽃의 색깔이 자주 변한다 하여 '도체비고장' 또는 '도체비꽃'이라 불리며, 집 주위에는 심지 않았다고 한다.



15) **자귀나무**는 3~8m 정도로 자라는 콩과에 속하는 낙엽활엽 소교목으로 주로 산기슭의 양지에서 자란다. 나무를 깎는 연장인 자귀의 손잡이를 만드는데 사용한 나무라서 자귀나무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 밖에도 소가 좋아해 소땀나무, 밤이 되면 모든 잎이 짝을 이뤄 합쳐져 부부금실을 상징하는 '합혼수', 콩각지 같은 열매가 바람에 흔들려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여설수'라고도 불린다.

16) 예덕나무는 10m 정도로 자라는 대극과의 낙엽활엽 소교목으로 남부지방의 바닷가나 산지에서 잘 자란다. 예덕나무는 나무모양이 오동나무를 닮아 야오동(野梧桐), 야동(野桐)이라 부르고, 봄철에 돋아나는 새순이 붉은 빛깔이 나기 때문에 적아백(赤芽柏), 잎이 크고 넓어 밥이나 떡을 싸기에 좋다고 하여 채성엽(採盛葉)이라 부른다. 특히, 뜨거운 밥을 예덕나무 잎에 싸면 예덕나무의 향기가 밥에 배어 일본에서는 예덕나무 잎으로 밥이나 떡을 싸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17) 닭의장풀은 닭의장풀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전국의 인가 부근이나 울타리 밑 등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자란다. 닭장 부근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꽃잎의 모양새가 닭의 벼슬을 닮아 '닭의장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마디가 있는 줄기를 물에 씻으면 금새 뿌리를 내려 당나라 시인 두보는 '꽃이 피는 대나무'라고 해서 수반에 꽃아 키웠다고 한다.

18) 인동덩굴은 인동과의 반상록활엽의 덩굴성 관목으로 전국의 산야에서 잘 자란다. 인동은 활엽성 잎을 붙인 채 모진 겨울을 나기 때문에 참을 '인', 겨울 '동'을 써서 '인동'이라 이름 붙여졌으며, 흰 꽃과 노란 꽃을 한 나무에서 볼 수 있어, '금은화'라고도 불렀다. 그 중 금은화라는 이름 때문인지 길조화라 여겨져 고구려 중묘 벽화나 통일신라시대의 기와 문양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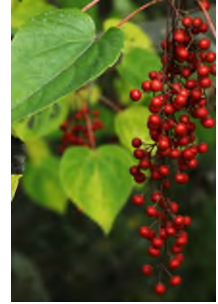
19) **고마리**는 마디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양지바른 곳이나 반양지에서 잘 자란다. 물가의 나쁜 환경에서도 번식을 잘해 이제 그만 되었다는 의미로 '그만이풀'이라고 하던 것이 '고마니'를 거쳐 '고마리'가 되었다고도 하고,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 주는 '고마운 풀'이라는 의미로 '고마운 이'라고 부르다 '고마리'가 되었다고도 한다. 실제로도 오염된 축산폐수를 고마리가 살고 있는

수로를 거치도록 만들었더니 1급수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으니, 고마운 풀임이 분명하다.

20) **삐죽나리**는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남부지방의 산지에 자생하며, 나무 밑그늘에서 볼 수 있다. 흰색에 자주색 점무늬가 꼭 삐꾸기의 가슴 털 무늬를 닮아서, 또는 삐꾸기가 한참 번식할 무렵 피는 꽃이어서 '삐죽나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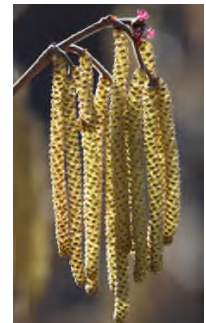


21) 이나무는 이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제주도와 전라도, 충청남도의 표고 700m이하 저지대에 드물게 자란다. 병해충과 공해에도 강하고 바닷가의 염분에도 강하다. 하지만 추위에 약하여 겨울철의 최저 온도가 -15℃ 이하로 내려가는 곳에서는 동해피해를 입는다. 이나무는 중국에서는 금슬(琴瑟, 거문고와 비파)을 만드는 나무로 의동(椅桐). 즉 이나무를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어 약기재로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22) 이질풀은 쥐손이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란다. 이질병의 치료에 쓰여 이질풀이라 이름 붙여졌다고 전하며, 속명 Geranium은 열매의 모양이 학의 부리를 닮아 그리스어로 ‘학’을 의미 제라노스(Geranos)에서 유래되었다.

23) 개암나무는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 산기슭의 양지 쪽에서 자란다. 열매의 맛과 모양이 밤과 비슷해 ‘개밤’이라 부르던 것이 ‘개암’으로 변했다고 전하는 개암나무는 기름을 짜거나, 식용으로 이용되었다. 서양의 개암나무는 커피향의 원료인 헤이즐넛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독일에서는 부를 상징하고, 아일랜드의 전설에서는 악마를 쫓는 부적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열매 중 하나인 듯하다.



24) 국수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 산의 초입인 들과 산의 경계에서 자란다. 국수나무는 가는 가지의 껍질을 속껍질까지 잘 벗겨내면 안에 수가 길게 뽑아져 나오는데 마치 흰 국수가락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숲의 경계에서 덩굴처럼 자라는 국수나무는 인간의 침입을 막는 보초병 역할을 하고, 숯가마의 포대재료나 붉은색을 내는 염료로 사용된다.



## 2.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식물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 1) 나도밤나무 너도밤나무

이 나무들은 밤나무라는 말이 붙었지만 밤나무가 아니고 까치박달나무라고도 한다. ‘나도밤나무’는 산에 저절로 자라는 나무로 잎은 길둥근꼴로 어긋맞게 나고 꼭대기에 누른 풀빛의 꽃잎 다섯 개가 원뿔꽃 차례로 피며, 붉은 빛의 둥근 씨열매가 열린다. ‘너도밤나무’는 울릉도에 주로 있는 나무로 잎은 알꼴로 뽀족하고 물결꼴의 톱니가 있으며, 수꽃은 6월 무렵에 잎겨드랑이에서 피고 암꽃은 가지 끝에 피는데 열매는 쪽밤과 같아 10월에 익는다. 나무는 단단하여 건축이나 가구 재료로 많이 쓰인다.



너도밤나무의 꽃



나도밤나무의 꽃



밤나무의 꽃

‘나도밤나무’의 전설은 울곡 이이의 탄생 설화로 전한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에 울곡 이이와 화서 이항노를 배향(配享:학덕이 있는 사람의 위패를 문묘나 사당, 서원 등에 모심)하는 봉산서재(蓬山書齋)가 있다. 이 봉평은 울곡 아버지 이원수의 본가가 있는 곳으로 그는 인천에서 수운관관으로 재직할 때 쉬는 틈을 타 이곳으로 오다가 평창군 대화면 반정에서 하룻밤 자려고 주막에 여장을 풀었다. 그날 밤 주모는 용이 가슴에 안겨오는 이상한 꿈을 꾸다 잠에서 깨어났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이는 비범한 인물을 잉태하게 하는 꿈이 틀림없었다. 마침 그날 주막에 묵고 있던 사람은 이원수뿐이었고 비범한 상이었는지라 주모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이원수에게 하룻밤의 동침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원수는 끝내 거절하고 다음날 길을 떠났다. 이 무렵 울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강릉 언니네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역시 어느 날 꿈에 용이 가슴으로 안겨드는 꿈을 꾸었다. 언니의 간곡한 만류도 거절하고 신씨는 그 날로 일백 사십 리를 걸어 집에 돌아왔다. 이 날 밤의 동침으로 신씨는 울곡 선생을 잉태하였고 이원수는 돌아가는 길에 주막에 들르게 되었다. 이때 주모가 이원수를 보고는 “이번 길에 댁에서는 귀한 아들을 얻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몇 살 안 되어 호환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닌가. 당황한 이원수는 “그 무슨 말씀이요. 만약 진실로 그러할진대 앞으로 그 화를 막을 수 있는 묘법을 제발 가르쳐 주시오.” 라고 간청했다. 주모는 밤나무 1천 그루를 심으면 호환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주모 말대로 명주(溟州) 땅에 밤나무 1천 그루를 정성껏 심어 놓고 때를 기다렸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험상궂게 생긴 중이 시주를 청하며 어린 울곡을 보자는 것이었다. 이원수는 지난날 주모의 말을 떠올리고 중의 요청을 완강히 거절하였다. 그러자 중은 밤나무 1천 그루를 시주하면 그대의 아들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원수는 준비한 1천 그루를 내보이기 위해 뒷동산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9백 9십 9그루밖에 없지 않은가. 이원수는 그만 사색이 되어 와들와들 떨고 있는데, 돌연 숲속의 나무 한 그루가 “나도 밤나무”라고 외쳤다. 괴승은 몹시 놀라더니 호랑이로 변하여 도망쳤다고 한다. 결국 ‘나도밤나무’가 밤나무의 동료가 되어 위대한 인물을 도운 셈이다.



※ ‘나도—’가 붙은 식물은 이것만이 아니다. 한글학회 큰사전에만해도 나도개미자리, 나도냉이, 나도딸기광이, 나도바람꽃, 나도바랭이 등 무려 서른 다섯 개나 실려 있다. 이 식물들의 공통점은 ‘나도—’라는 말 뒤에 오는 식물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점이다. 아기자기한 식물의 세계만큼이나 자연에 대해 아기자기했던 이 땅의 토박이들은 ‘나도—’라는 양증맞은 대화체 앞가지(접두사)를 붙여 이름을 만들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리라. 특히 유용하고 친근한 밤나무에는 위대한 인물에 대한 존경심까지 덧붙여 놓은 것이리라.

‘너도—’가 붙은 식물도 있다. 위 사전에 보면 너도개미자리, 너도바람꽃 등 다섯 개가 실려 있다. 이때의 ‘너도—’도 ‘나도—’와 마찬가지로 뒤에 붙은 식물과 비슷하다는 뜻이다. ‘나도밤나무—너도밤나무’처럼 대칭되는 것은 나도개미자리—너도개미자리, 나도방동사니—너도방동사니, 나도양지꽃—너도양지꽃 등이다.

‘너도밤나무’에 얽힌 전설은 특산지인 울릉도 태하령(台霞嶺) 너도밤나무 숲이 있는 마을에 전한다. 어느 날 산신령이 이 마을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 산에 밤나무 백 그루를 심어라. 그렇지 않으면 크나큰 재앙을 내리리라.”고 엄명을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부랴부랴 그 산에 밤나무를 백 그루 심고 정성껏 가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산신령이 나타나서 “밤나무 백 그루를 심었느냐?”고 물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자 산신령은 가서 세어 보자며 산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세어 보니 나무는 아흔 아홉 그루 밖에 없



너도밤나무 숲

었다. 산신령의 진노는 대단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세어 달라고 간청하여 다시 세서 아흔 아홉에 이르렀는데 옆에 있던 작은 나무가 느닷없이 “나도 밤나무”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산신령이 “너도 밤나무냐?” 라고 해서 ‘너도밤나무’ 라 이름 지었다는 것이니, 해학스럽기까지 한 위 두 전설의 나무는 마치 따뜻한 이웃처럼 다가온다. 이렇게 밤나무가 아니면서도 밤나무라는 말이 붙어 재미있는 전설을 안고 있는 것은 밤나무 자체의 유용성과 친근감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밤나무 심는 것을 많이 권장하였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 2) 매화나무와 인동

우리는 흔히 인내의 상징으로 매화(나무)를 든다. 그것은 순전히 사대부들의 노력과 관습 덕택이다. 사대부들의 취미 생활인 묵화에서 귀하게 여겨 오는 네 가지 소재, 곧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에 사군자(四君子)라는 인격을 부여하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소재로 자주 쓰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물론 사군자의 식물은 그 자체로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런데 이름 자체가 아예 추운 겨울을 잘 참아낸다는 뜻을 가진 식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동’ 이다. 한때 운동권 학생들이 인내의 상징으로 인용하곤 했던 꽃이다. 이 꽃은 추위에만 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공해, 건조, 염분 등에도 잘 버티고 생장도 빠르다. 그래서 그런지 해열, 매독, 이뇨 등의 약재로도 쓰인다. 또한 술에 담가 먹기도 하고, 꿀도 있어 양봉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인동은 6~7월에 각 마디에서 두 송이의 꽃을 피우는데 이때 먼저 흰 꽃으로 피어났던 꽃은 점차 노란색으로 바뀐다. 이처럼 흰 색과 노란 색 꽃이 함께 피어 있어 ‘금은화’ 라고도 부른다. 또한 꽃이 피었을 때 모습이 학이 나는 것 같다 하여 ‘노사등(鷲?藤)’ 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인동초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인동이 바닥에서 덩굴이 뻗으며 자랄 때 풀잎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인동덩굴

### 3) 오동나무와 우리 조상

옛 어른들은 딸을 낳으면 마당 한구석에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딸이 시집 갈 때 오동나무를 베어 장롱도 만들고 경대도 만들어 혼수에 보태기 위함이었다. 그만큼 오동나무는 빨리 자라고 재질도 좋다. ‘오동 씨만 보아도 춤을 춘다’는 속담도 오동나무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곧 이 속담의 직접적인 뜻은 오동나무 씨를 보고 오동나무를 떠올림과 동시에 오동나무로 만드는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생각하고 춤을 춘다는 뜻이다. 그래서 조그만 동기나 실마리를 보고서 금세 목적이나 결실을 본 것처럼 좋아할 때 이 속담을 쓴다. 오동나무의 재질은 유별나서 특히 소리를 전달하는 힘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거문고, 가야금, 비파 등의 악기 제조에 많이 쓰인다. 신라에 귀화한 우륵의 가야금도, 고구려 때 진나라에서 보내온 칠현금을 왕산악이 개조해서 만든 거문고도 오동나무로 만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매화는 아무리 추위도 함부로 그 향기를 팔지 않고 오동은 천 년을 묵어도 항상 아름다운 곡조를 간직한다.” 고 했다. 물론 가구와 악기 이외에 나막신, 지팡이도 만들었다. ‘오동상장(梧桐喪杖)’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모친상을 당했을 때 짚는, 오동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이르는 말이다. 부친상 때는 대나무 지팡이를 썼다고 한다. 딸 시집 보내는 것과 관련되다 보니 ‘오동나무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한다’는 말도 생겼다. 마음에 드는 이웃집 어여쁜 딸은 오동나무에 비유한 것이다.



오동나무 꽃



오동나무 가구



오동나무로 만든 가야금

### 4) 쌀밥 같은 이팝나무

이팝나무는 남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나무로 2, 3백 년이나 된 나무가 전국에 심여 그루 있다고 한다. 이팝나무는 이름부터 재미가 있다. 그래서인지 이름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하나는 이팝나무에 꽃이 활짝 피면 쌀밥을 그릇에 담아 놓은 것 같다고 ‘이팝나무’라 한 것이 발음이 변해 이팝나무가 됐다는 설이다. 또 하나는 쌀밥은 옛날에는 귀한 밥이었으므로 이조 왕을 생각해서 이밥(李밥)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 두 설보다는 이팝나무의 특징과 관련된 설이 그럴듯하다. 곧 이 나무의 꽃이 활짝 피면 풍년이 들고 드문드문 필 때는 가뭄이 들며 꽃이 잘 피지 않으면 흉년이 온다는 민속 신앙에서

비롯되는 설로 쌀밥을 먹고 못 먹고를 점쳐 준다고 하여 이팝나무라 하였다는 것이다. 모두 언어적으로 보면 근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나무가 무척이나 소중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민속 신앙과 관련된 설은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도 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되는 입하(여름설)가 되면 남쪽에서는 못자리를 만든다. 이때가 이팝나무의 꽃이 필 때로 수분이 많으면 꽃이 활짝 피고 가물면 꽃이 잘 피지 못하므로 풍년과 흉년을 점칠 수 있었던 것이다. 공해 탓에 이팝나무의 이러한 기능이 거의 상실됐다고 하니 또 한 번 현대 문명에 회의를 품게 된다. 농업을 우습게 여기는 현대의 농업 정책은 더욱 우울한 소식이다.

